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Tel : +82-2-880-7241
Fax : +82-2-871-5974
<http://ee.snu.ac.kr>

design by LOUISBEL(학부 07 김찬별)



SNU EE LIFE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소식지
2010 / 하반기

CONTENTS

- 02 - 03 신임 교수 인사말
- 04 - 05 대학원 탐방
- 06 졸업생과의 만남
- 07 여학생 모임
- 08 학생센터 e 생생 발족
- 09 전공도우미 소감문
- 10 교환 학생 수기
- 11 우수논문상 수상자
- 12 - 13 EE인의 수상
- 14 - 15 해동학술정보실 개관
- 16 반대표 장학금 수여식
- 17 기자단 후기
- 18 - 19 2010 상반기 이모저모

신임 연구부학장 인사말

“

전기공학부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전임 노중선 교수님을 이어서 이번 6월부터 전기공학부 연구부학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주로 우리 학부의 연구와 시설 환경 분야입니다. 전기공학부는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큰 학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배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선도하여 큰 업적을 이루었고,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도 무척 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 성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학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어려운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데 뉴스레터 역시 그와 같은 역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 뉴스레터가 우리 학부 및 학생들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로 유용한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매체로서 우리 학부의 자랑거리의 하나로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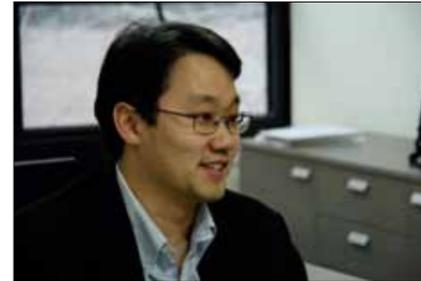


이창희 교수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평소에 수업시간, 학생 면담, 졸업프로젝트, 대학원생과의 연구 등을 통해 느낀 점 중에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어려워하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실수 또는 실패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 때도 교수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너무나 강조되어 조금의 실수 또는 실패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반복된 실수 또는 실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사례이지만, 미국 3M이라는 회사는 새로운 시도가 실패했어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은 연구원들에게 "실패 파티"를 열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하는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실수 또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창조적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신임 교수 인터뷰



김재하 교수

- 1994 - 199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학사
- 1997 - 1999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
- 1998 - 2003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
- 2001 - 2003 미국 True Circuits사 Circuit Designer
- 2003 - 2006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 2006 - 2009 미국 Rambus사 Principal Engineer
- 2009 - 2010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전기공학과 대우조교수
- 2010 - 서울대학교 교수

Q1.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님으로 부임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1994년에 학부생으로 입학하여 1997년까지 지냈었고, 미국 유학 후에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대학교가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것은 우리 학교가 그 짧은 세월 동안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것이고, 교수로 부임해서는 그 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을 때와는 달리, 학부 강의를 하며 학부생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제 학부시절 생각, 그때 저에게 해주시던 은사님들의 말씀이 많이 되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Q2. 교수님께서 바라는 학생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많은 학부생들이 취직이나 유학,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할 때 학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학점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또는 진로에 대해서 생각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학생상은 '난 정말 이런 것을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동기가 충만한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점도 좋지만, 가끔은 과목 외의 것을 탐구하느라 소위 '스펙관리'를 하는 학생보다는 성적순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라던지 시험이라던지 필수적인 것만 찾아서 그것만 성실히 수행하는 학생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저도 그 문제를 같이 푸느라 저절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제가 시키는 일만 성실히 하는 학생들과 일하면, 그 학생이 그 일을 다하고 나면 다음 과제를 내줘야 하는 것이 오히려 심적인 부담이 되더군요.

Q3.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의 대답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이미 전공과목을 많이 배운 학생들도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해서 기초적인 문제에도 접근조차 꺼려하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이런 것은 못할 거야'라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조언이 처음 몇 년간은 특권을 줄테니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엉뚱한 연구주제라도 지도교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한 무모한 도전,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과 교훈 등은 반드시 후배들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일수록, 경험이 모자랄 때일수록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특권을 충분히 살릴려면 그만큼 모든 문제에 힘껏 부딪혀봐야 되고, 더 많은 노력도 해야 하며, 그에 비례해서 쓰라린 좌절도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과 교훈이 여러분의 인생의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ENEWS

우리 연구실을 소개합니다

- 시스템 합성 연구실 / 김태환 교수

연구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정보들을
참고해주세요~

TEL | 880-9144

E-mail | tkim@ssl.snu.ac.kr

홈페이지 | http://ssl.snu.ac.kr/~tkim

전기공학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EE LIFE의 연구실 탐방에서는 2호의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박세웅 교수님 연구실에 이어 이번 3호에서는 [컴퓨터-임베디드 시스템]분야의 김태환 교수님의 시스템 합성 연구실을 탐방했습니다. 연구실 소개와 교수님과의 인터뷰, 연구실 역사, 박사과정의 학생분들과 인터뷰로 함께 연구실과 연구실 생활에 대해 알아봅시다.

▶ 연구실 소개



우리 연구실은...

전자 기기의 성능은 만든 설계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설계자가 사용하는 설계 툴의 성능에 따라 좌우되는데, 본 연구실에서는 복잡한 전자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설계 자동화 툴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툴 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전자 회로 설계에 대한 지식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전자 시스템 설계는 갈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 자동화 툴의 도움 없이는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은 정기적인 행사보다 그 때 상황에 맞게 간단한 식사를 통해 모임을 가집니다.

▶ 교수님 인터뷰

① 교수님께서 최근 관심에 두고 계신 연구 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근에는 휴대기기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설계 기술과 노이즈나 오작동을 방지하는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망한 3차원 구조의 칩 설계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설계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② 교수님께서 연구실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호하는 학생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선호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에서도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한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같이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선발합니다.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잘 키워 자신감을 주어 사회에 보내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여기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김태환 교수

③ 연구실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해두었으면 하는 공부와 가졌으면 하는 마인드에 대해 알려주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 욕심을 낸다면, 전자회로,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운영체제 순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기본은 다 갖춘 것입니다. 연구실에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을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리라 봅니다.

④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기공학부 많은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시험 성적이 나쁘거나, 다른 일이 뜻대로 안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버티면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니 꾸준히 공부하고, 계획을 세워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 보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 대학원생 인터뷰



① 연구실만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실 자랑 한마디 해주세요.

주덕진 일단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잘 배려해주세요. 논문도 많이 나오는 분야이고 교수님께서 코딩도 굉장히 잘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형중 교수님 중에는 학생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려는 분도 계시고, 너무 학문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계시어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지도교수님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강민석 김태환 교수님은 전기공학부에서 학생들을 많이 생각해주는 분을 떠올린다면 빠지지 않으시죠. 그리고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라면 교수님과 상의 후 그 쪽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잘 지도해주세요.

② 박사나 석사로 진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덕진 저는 디시실이 재미있었고 운영체제나 전자회로 등 연관된 분야가 많이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 선택했어요. 군대 문제도 아예 관련이 없진 않았구요. 그리고 방학 때 인턴도 했었습니다.

서형중 학부에서 배우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 시작한 전공이니 배울 수 있는 만큼 많이 배워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면 나중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입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구요. 학부만 졸업하고 가는 경우에는 전공분야와 관련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강민석 일단 교수님께서 연구 지도도 잘 해주셔서 계속 연구하면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하기로 결심했어요. 장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군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군대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③ 대학원 생활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서형중 아무래도 저희 연구실은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어야 하니깐 체력적으로 약간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자주해야 해요.

④ 진로를 고민하는 전기공학부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주덕진 학점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신이 가려고 하는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학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취업하는 경우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원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거예요.

서형중 사실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전공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들은 과목들 중에서 그래도 이 분야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과목들을 골라서 진로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게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방향은 반드시 저학년 때부터 생각해두세요. 2학년 중반부터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찍 생각해야 그만큼 여유 있게 고민할 시간도 많아지고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연구실 정보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께 여쭙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강민석 학부 때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권장해요. 물론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대학원에 가서 영어로 된 논문을 막힘없이 봐야하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과목의 내용보다는 그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부적인 내용은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찾아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EENEWS



(왼쪽부터)

주덕진(석사 4학기), 서형중(석사 4학기), 강민석(박사 2학기)



졸업생과의 만남



류영준
학부 02학번
석사 08학번

SNU EE 선배들은 사회에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전기공학부 학부 02학번, 이병기 교수님 통신 및 신호처리 연구실 석사 08학번
졸업생 류영준 선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1. 석사를 마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된 이유와
특히 KT란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실무 경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인턴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도 벌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정말 전무했거든요. 공부도 공부지만 실무 경험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KT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백분방 같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직접 한번 다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백분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KT이고 KT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러한 모든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인터넷 전화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VoIP에 멀티미디어 및 여러 가지 복합 서비스를 부합시킨 서비스를 SoIP라고 하는데, SoIP를 서비스하기 위한 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최근에는 상무님 지시로 스마트폰 관련 신사업 아이디어 도출 및 업무 적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는 몸 좀 아프고 가기 싫고 하면 하루 정도 빠져도 그만이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결국 모든 구성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맡은 저의 역할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전기공학부에서 공부한 것이나 활동한
것 중에 회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에 들어가면 일단 처음부터 새로 다시 다 배웁니다. 제가 학부나 대학원에서 배웠던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전기공학부에서 제가 만들어 두었던 인맥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죠.

4. 마지막으로, 전기공학부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서울대 출신은 자신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을 잊어야 할 때가 한 번이 있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에 나가서 동료나 상사 등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무조건 잊으십시오. 누구나 여러분들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대단하다는 사실도 전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조금만 낮추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을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업무에 임할 때는 서울대 출신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과 똑같은 성과를 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남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남보다 먼저 나아가야 되고 남보다 뭔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서울대 출신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같은 서울대 출신을 발견했을 시에는 절대 자신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학교에서는 전부 같은 학교 사람들 밖에 없으니까 많을 것 같지만 막상 나가보면 서울대 출신은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뭉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문은 절대 라이벌이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문을 만나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남보다 더 인정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ENEWS**

인터뷰 / 신다영



학부 08 이승선



한 학기에 한 번뿐인 축제이지만, 이 모임만큼 전기공학부 여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이번 축제에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업시간에 느끼는 교수님의 위엄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친근하고 편안한 선배처럼 대해주셔서, 함께 있는 여학생들과 모두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문제, 진로문제뿐만 아니라 평소 교수님께 궁금했던 점도 여쭙볼 수 있었고, 교수님 또한 친절하게 조언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매우 훌륭한 분위기였습니다. 전기공학부에 여학생이 적어서 남학생들과 거대나 보면 외로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교수님과 여학생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축제에 아직 참석해 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축제에 참석해서 여학생들끼리 친목도 다지고 앞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매.회. 2010.3.31



학부 07 신보경

이번 축제는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모임이 취소되어 1년 만에 갖게 되었습니다. 전기공학부 여학생 인원이 적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학생들 모두 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은 인원을 4개의 반으로 나누다 보니 서먹한 사이가 많습다. 하지만 축제회 모임을 통해 4개 반의 여학생들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수업시간에 저 멀리 칠판 앞에서 강연하시는 교수님과의 거리도 좁힐 수 있어 참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축제회 모임에 처음 참여했을 때에는 교수님이 친없이 먼 분 같아 보여서 말을 걸지 못했는데,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수록 교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집스러운 분위기의 축제 식당에서 정감이 가는 고깃집으로 모임 장소를 변경한 것도 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찬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겨울에 졸업을 앞두고 한 학기에 한번 모이는 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어 아쉽지만,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이 열릴라길 바랍니다. **EENEWS**



인터뷰 / 신다영
사진 / 김수지

전기공학부 학생센터 e생생



학생센터장 김용권 교수



우리 학부의 학생센터 'e생생'이 2010년 6월 발족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학부 학생에게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학습과 진로, 생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학부 학생이 장차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품성을 갖추는 것을 도움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부는 약 1000명의 학부생이 재적을 하고 있고, 매 학기 800여명이 등록을 하여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과 여러 교수님들이 공존하기에 학교생활에서는 작고 큰 문제들이 소소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 센터는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고민과 상담, 대학 생활과 심리에 관한 상담, 진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학교생활에는 비단 수강과 학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선후배·교수님 등 다양한 만남과 인간관계가 있으며, 학내·외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생활이 존재하고, 이 모든 대학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좀 더 즐겁고 유익하게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생센터는 학생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며,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좀 더 친숙한 애칭인 'e생생'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e생생'은 301동 3층 학부생 실험실 옆 309호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친숙한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이 'e생생'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EENEWS

학생센터 e생생 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 안내

- 신입생 도우미 제도
- 스터디 그룹 편성
- 진로별 학생모임
- 동문멘토링 프로그램
- 심리검사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공도우미 소감문



학부 07 윤용호



학부 07 정서빈



예전부터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전공공부를 하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프로젝트에 조언을 주기도 하곤 했습니다. 현대 학부에 전공도우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저와 친한 친구나 후배들뿐 아니라 잘 모르는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하다고 해도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도우미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 좀더 부담없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도우미를 하고 있다보니 도우미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 방법론 외에도 도우미가 없는 과목들(디지털 시스템 설계, OS 등)의 질문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그런 질문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도우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학년도 1학기 전자회로1 도우미를 맡았던 정서빈입니다. 도우미로서 그다지 한 일도 없는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네요.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에 했던 걱정이 생각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괜히 실수나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자회로 내용을 다시 보게 되어서 회로에 대한 기본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에 전자회로를 수강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정작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해동 세미나실에서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 동안 활동을 하였는데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제 동기들이 많이 왔습니다. 해동에 공부하러 왔다가 잠깐 들리거나 세미나실이 편해서 정기적으로 오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도우미 활동은 동기들과 함께 해동 세미나실에서 편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도우미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세요. 많이 이용해주셔야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거든요. 전기공학부 선배, 동기, 후배님들도 이번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ENEWS

우수 논문 수상자



북경대학교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학부 04학번 이재상

북경대학교는 1898년에 세워진 중국 최초의 국립학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재계의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명실상부 중국 최고의 대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대학 평가에서 근 10년간 칭화대학교에 추월당하여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 속에 중국 정신의 뿌리를 지탱해온 북경대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최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광화관리학원, 국제관계학원 등 북경대 내 여러 학부에서는 금변하는 중국의 위상과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수업을 많이 개설하고 수강을 두려함으로서, 장차 중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세계화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업들이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유학이나 어학연수 한 번 나간 적 없는 중국학생들의 유창한 영어실력은 원어인 학생조차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수준급이었습니다. 또한 공대 수업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 시간 동안 교수와 연필 토크를 펼치는 중국학생들을 보았을 때 장차 10년, 20년 후에 세계무대에서 중국을 이끌어갈 이 용(龍)들 앞에 등공이 모색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누구보다 미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으며, 중국 성장의 주역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중국친구 후오다(霍達)와 함께 역대 황제들이 제위를 물려받기 전 올랐던 중국 태산(泰山) 정상에서 일출을 보며 들었던 중국의 정치, 경제, 역사, 미래의 목표, 그리고 중국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북경대와 칭화대 인재들의 가슴 벅찬 꿈 이야기들은 제가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와서 얻었던 최고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잘 알고 그 점을 크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10년, 20년 후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서울공대 인재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었던 공과대학 대외협력부에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해주셨던 지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ENEWS

고을(박사 1년차)_마이크로머신 연구실



먼저 우수 논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지도해 주신 김용권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처음 우수 논문상 후보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수행했던 연구 주제는 암 진단을 위한 마이크로 리터의 반응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생명 공학 분야에 전자 공학(반도체 소자)을 적용하는 융합 학문입니다. 평소에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더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석사 과정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연구자로서 기초를 다지면서 얻은 즐거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소자에 관한 연구를 하며 반도체 연구소에서 장비를 다루어 실제로 소자를 제작·측정하기도 하였는데,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에는 세심한 주의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서 좋은 연구자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동(박사 1년차)_반도체 재료 및 소자 연구실(SMDL)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컴퓨터공학부 반도체 재료 및 소자 연구실(SMDL) 김완동입니다.

석사과정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지만, 부족한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고마운 연구실 식구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신 박병국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대학원에 입학하여 연구실로 출근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학부 때는 미리 신청해둔 수업들을 찾아 듣고 자유롭게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지냈었는데 대학원에 입학한 뒤에는 학교에 제 자리가 마련되고 연구실에 소속되어 수업이 아닌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실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학부 때는 수업을 듣고 전공서적을 공부하면서 전공에 따른 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오차를 분석하는 것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는 연구 주제를 정하여 아직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실험을 스스로 계획하여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도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선배님들께서 여러모로 자신이 해왔던 실험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시고 실험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교수님께서 꼼꼼히 지도해 주신 덕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조금씩이나마 엔지니어로서 성장한다는 느낌에 즐겁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

학우들, 교수님들께서 끊임없이 학문적 자극을 주신 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ENEWS

홍용택 교수, IEEE 선정 IT 젊은 공학자상 수상!

1. 젊은 공학자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신인상' 과 마찬가지로 흔히들 '젊은'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상은 일생에 단 한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제가 가진 많은 인복(人福)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날 밤을 새워 가며 연구에 매진하는 제 연구실 학생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상을 제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묵묵히 저를 믿고 잘 따라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신진 연구 인력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선배 교수님들과 연구자들께서 희생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좋은 연구 환경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을 주신 것은 지금껏 그 분들의 어깨에 올라서 이룬 제 업적을 격려해 주시고 동시에 후배 연구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앞으로 학계와 산업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아들이 잘 되기만을 기원해 오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동안 저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좋은 기회를 희생해 온 제 아내와 두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 교수님께서 요즘 연구하시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차세대 유연성 소자 및 이를 이용한 전자 회로 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유기물, 산화물 반도체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 유기발광다이오드, 압력 및 온도 감지 센서 어레이 및 신축성 배선 등을 이용하여 고성능의 유연성 (flexible) 및 신축성 (stretchable) 소자를 개발하고 이들의 동작원리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작 방법에 있어서는 대면적, 대량생산,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용액 기반의 잉크젯 및 스크린 인쇄 공정 등의 차세대 소자 제작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유연성 소자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rollable) 또는 접이형 (foldable) 디스플레이, 유연성 면 조명, 투명 디스플레이, 고 신축성 전자 피부 등에 응용하는 신기술 개발에 그 목표를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훌륭한 공학자가 되길 원하는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진로도 다양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방향을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서울대 전기공학부생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부 게시판에도 몇 번 글을 남겼습니다만, 서울대 전기공학부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인재들과 경쟁하고 공부하며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인격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되, 워만 바라보지 마시고 좌절을 느낄 때는 아래를 바라보며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되 항상 최고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며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서울대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너무 평점에 얽매인다든지 성적으로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 이 아닌 '목표' 를 가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만 예상하기보다는, 내가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밝은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계획을 세우며, 폭넓은 경험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도 많이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EENEWS



홍용택 교수

학부 07 홍상현, 정은지, 교내 어플리케이션 경진대회 입상!

1. 앱 개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근래 Toyota의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가속 페달이 운전석 아래 Mat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었지만, 해당 차량의 면밀한 분석 결과 가속을 맡고 있는 System을 조정하는 Program Error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사고시 옹고 그림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용 영상 녹화장치를 만들기 하였습니다. 시중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기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었고 가격은 10 - 100만원까지 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0 - 30만원의 것들은 현재 Smart - Phone에서 지원하는 Hardware로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였고, 사람들이 이러한 기능이 구현된 Application을 무료로 사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홍상현 (학부 07학번)

2. 앱 개발 내용은 어떤 건가요?

개발을 통해서 수상작에 이른 Application은 차량용 블랙박스입니다. 이는 현재 시판되고있는 차량용 영상 녹화 장치를 Android Platform기반의 Smart-Phone Application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지원하는 기능에는 운전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하는 연속 녹화기능과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상황에서 -10초 ~ +10초 동안을 녹화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10초 ~ +10초 동안의 정면영상, GPS, G-Sensor의 정보를 각 초당 30프레임, 1회, 166회 저장합니다. 저장되는 File의 Header에는 사용자의 차량 번호, 차량 종류, 차량 크기를 입력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메뉴의 Setting 화면에서 설정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앱 개발에 관심 있는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많은데, 앱 개발에 필요한 공부는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작품이 저의 처녀작이기 때문에 Application 개발 경험으로는 저는 아직 초보자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몇 가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Application의 개발은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Java를 이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친구들과 일단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누가 공부를 많이 하느냐 보다는 누가 자신이 만드는 Application에 대해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앞으로 다른 앱을 개발할 계획이나 진로는 어떻게 되시나요?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입니다. 따라서 방향에는 전기공학부의 4학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전기공학실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Database를 이용하는 Application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Database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의미있는 새 정보를 만든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주제나 세부 계획은 정하지 않았으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Application을 만들고 싶습니다. EENEWS

수상을 축하합니다

해동학술정보실 리모델링

31동 3층에 위치한 해동학술정보실은 전기공학부 김정식 동문(전자 48학번)에 의해 1996년 10월 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기공학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동학술정보실이 올해 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해동학술정보실의 바뀐 모습을 다같이 살펴 봅시다~



너무 이쁘죠??^^



새롭게 바뀐 해동 많이 바뀌었죠?

EE LIFE에서는 해동학술정보실 리모델링을 기념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건의사항

가끔 난방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신경쓰입니다. 09 장재명

도서 반납하는 박스함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 시간외에 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06 신중호

도서대여 시간을 연장해주세요 08 이상엽

주말, 새벽에 난방을 좀 해주세요. 07 이우석
저녁시간에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08 김용욱

노트북 사용을 위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08 변경욱

앞은 키가 커서 책상이 조금 낮는데 약간 높은 책상 배치해 주실 수 있나요?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거 같아요. 08 차승철

문이 너무 오래 열려 있어서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07 박홍중

문이 너무 늦게 닫힙니다. 출입이 잦은 시간에는 외부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03 오승엽

자리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시험기간에 자리가 너무 부족하네요. 책으로 자리 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문 쪽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가끔 납니다. 하지만 해동 너무 좋아졌어요. 09 김재현

입구 쪽 디자인이 너무 멋져요. 공간이 널찍널찍해서 좋아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해동학술정보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서관이 확장되었습니다. 편하게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도 마련되어있고 한쪽에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 이재선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해동 정리정돈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답니다~ 그럼 해동 자료실도 구경하면서 이재선 선생님의 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해동학술정보실 사서 이재선



안녕하세요. 지난 2월부터 해동학술정보실에서 새로 일하게 된 사서 이재선입니다. 2010년 하반기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난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후 이제 한 학기정도 되었는데, 무엇보다 리모델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 학기 간 지내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해동학술정보실은 올해 2월 리모델링으로 인해 자료실과 열람실의 구분을 확실히 했습니다. 열람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공간이라면, 자료실은 은은한 조명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책과 잡지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부할 때는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실에서는 교양도서와 잡지를 통해 교양도 넓혀 가면 좋겠네요.

참, 그리고 해동학술정보실 홈페이지(<http://eei.snu.ac.kr/haedong/>)를 이용하시면 신착도서목록을 보실 수 있으며, 세미나실 이용신청, 희망도서 신청 및 분실물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해동학술정보실을 이용하시며 필요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저도 단순히 도서 관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고 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동학술정보실이 단순히 학술정보실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소통의 공간으로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지식이 오가는 곳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학술정보실을 즐겁게 이용하기 위한 약속 셋!

하나. 열람실내 생수병 이외 반입금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열람실 내에는 병에 든 생수 이외에, 컵과 음료 및 모든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아서 음식물을 반입한 학생들에게 제가 제재를 가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준수해서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 이용도서는 제자리 혹은 북트럭에.

도서관은 청구기호 순서대로 책이 꽂혀 있습니다. 서가에 서서 책을 잠깐 보시더라도 이 순서에 맞게 다시 꽂아두셔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북트럭에 놓아주세요. 아무 곳이나 책을 꽂아두시면 그 책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어, 이용할 수 없는 책이 됩니다.

셋. 대출기한 준수 - 전체도서관 제재

해동의 대출기간은 신분에 상관없이 10일입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1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체를 하실 경우 '연체일*2배*권수'의 대출제재가 있는데 이 제재는 해동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내의 모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는 엄격한 제재입니다. 그러므로 반납일을 꼭 준수하셔서 제재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2010 상반기 이모저모...

